

KIA, 뜨거웠던 6월...7월은 더 뜨거워진다

2위 LG 상대 위닝시리즈...지난달 12승5무7패 승률 0.682 '1위'
1.5게임차 5위 SSG·3위 롯데전...홈런 잇고 아쉬운 수비 있어야
네일·올러 '휴식차' 말소...프로 데뷔 앞둔 이도현 스타 탄생 기대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뜨거운 6월을 보낸 '호랑이 군단'이 마운드 테스트를 받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9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6월 마지막 경기를 펼쳤다. 운영철을 선발로 내세운 KIA는 LG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를 상대로 집중력 있는 타격을 선보이면서 12-2 대승을 장식했다.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온 KIA는 6월을 12승 5무 7패로 마무리했다. 6월 승률은 0.682로 전체 1위다.

부상 악재 속에서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성적이다.

'MVP' 김도영, '주장' 나성범, '타격천재' 김선빈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기회를 얻은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승리와 미래를 동시에 잡았다.

4위 KIA는 분위기를 이어 홈에서 중요한 순위 싸움을 펼친다.

1일부터 5위 SSG 랜더스를 상대하는 KIA는 4일에는 3위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주말 3연전 일정에 나선다. 1.5경기 차에 있는 상대들이다.

SSG는 1.5경기 차로 KIA를 추격하고 있고, KIA는 1.5경기 차로 3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순위 싸움을 위한 중요한 승부가 예고됐지만 KIA는 '막판 스피드'를 위해 마운드 숨을 고른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23일 제임스 네일에 이어 28일 올러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 많은 이닝을 소화한 두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말소. 당장의 승수보다 마지막 결승전에 중점을 둔 '장기 레이스'를

위한 방안이다.

지난 26일 키움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우완 김건국이 1일 다시 한번 마운드를 지키게 된다. 2일에는 우완 이도현이 '스타 탄생'을 꿈꾼다.

KIA는 지난 28일 고졸 3년 차 이도현을 처음 콜업했다. 휘문고 출신의 이도현은 입단 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프로 첫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성실함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이도현은 선발로 프로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뒤에서 야수진이 공격 흐름을 잇고, 수비 분위기를 바꾸면서 힘을 보태줘야 한다.

KIA는 부상 악재 속에서도 6월 홈런 1위 팀이 됐다.

고종욱의 대타 홈런, 위즈덤의 두 경기 연속 홈런 등 지난 주에도 7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며 6월 한 달 25홈런을 장식했다.

타선에서 고르게 홈런이 쏟아지면서 화력을 더한 KIA지만 수비가 아쉽다. 지난주에도 7개의 아찔한 실책이 기록됐다. 월간 실책도 23개로 전체 1위다. 수비에서 승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야수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부상 병동을 지탱하고 있는 최형우와 박찬호의 활약도 관심사다.

최형우는 지난주에도 25타수 10안타로 '4할' 타율을 장식하며 팀 내 주간타율 1위를 기록했다. 박찬호도 0.385의 타율을 찍으며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박찬호는 6월 31개의 안타를 수집하면서 월간 안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19차례 홈에 들어와 득점 2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반전의 6월을 보낸 KIA가 분위기를 이어 홈에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가 부상 악재에도 6월 한 달 0.682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순위 싸움에 불을 붙였다. 고종욱이 지난 29일 LG전에서 3안타를 기록하는 등 타선의 고른 활약이 반전을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대통령기 양궁 우승팀-국가대표 이벤트 매치 '장군명군'

5·18 민주광장서 개최 팬들 국가대표와 인종샷

“엑스 텐!”

30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양궁 경기장의 관객석에서 엑스 텐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전날 끝난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의 이벤트 경기 차 국가대표와 대통령기 우승팀과의 맞대결이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관중석 정면으로는 옛 전남도청의 복원 공사가 한창이었고 공사 중인 천막이 일부 견여지면서 옛 도청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경기가 열린 5·18 민주광장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결승전이 치러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장소 경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컴파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40분부터는 리커브 경기가 이뤄졌다.

여자 리커브 단체전에는 국가대표 안산(광주은행·사진)·강채영(현대모비스)·임시현(한국체대)이 출전했다. 상대는 대통령기 여자일반부 우승을 차지한 인천시청팀(전훈영·홍수남·장민희)。

안산과 강채영, 임시현이 사수대에 오르자 카메라를 든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고 안산은 팬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수들은 33도에 육박한 한여름 날씨에 연신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차분하게 과녁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이날 경기는 인천시청의 승리로 끝났다.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경기에는 김우진(정주시



30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이벤트 경기에서 여자 리커브 국가대표 임시현·안산·강채영이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겨우고 있다.

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김제덕(예천군청)이 출전했다. 상대는 울산시청 김민범·이선재·문군호. 결과는 국가대표팀의 승리였다.

경기가 끝나고 안산은 팬들이 있는 천막으로 들어가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 소통했다. 또 팬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 국가대표와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안산을 보기 위해 전주에서 온 장민혜(여·29)씨는 안산 SNS 팬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씨는 "도쿄올림픽이 열린 2021년 여름, 안산 선수의 모습을 TV 중계로 보고 반했다. 외모와

실력 모두 좋고 인간적으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 안산 선수의 경기를 자주 보러 온다. 가까이서 경기를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웃어 보였다.

임시현의 팬이라는 대학생 김주연(여·20)씨는 이날 경남 함양에서 광주를 찾았다.

김씨는 "임시현 선수는 늘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대회를 앞두고 있어 부담도 크겠지만 하던 대로, 경기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29일 한국의 임진희(왼쪽)와 이소미가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25 LPGA 다우 챔피언십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임진희·이소미 LPGA 첫 우승 합작

다우 챔피언십 제패

임진희와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우승을 합작했다.

임진희와 이소미 조는 지난 30일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 컨트리클럽(파70·628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합작하며 8언더파 62타를 쳤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한 임진희-이소미 조는 레시 톰프슨-메건 강(이상 미국) 조와 연장전을 치러 첫 홈인 18번 홀(파3)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임진희와 이소미는 모두 LPGA 투어 2년 차로 이번 대회를 통해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임진희가 6승, 이소미 5승을 올렸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80만5381달러(약 10억9000만원)로, 임진희와 이소미가 이를 나눠 갖는다.

LPGA 투어에서 유일한 2인 1조 경기인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선수가 LPGA 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김아림(2월), 김효주(3월), 유해란(5월)에 이어 임진희, 이소미가 네 번째다.

16번 홀까지 톰프슨-강 조에 1타 뒤져 있던 임진

희-이소미 조는 17번 홀(파4)에서 이소미의 버디 퍼트로 공동 선두가 됐다.

이날 4라운드 경기는 두 선수가 각각의 공으로 경기하는 포볼 방식으로 진행됐고, 연장전은 두 명이 공 하나로 경기하는 포스트 방식이 적용됐다.

144야드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서 티샷은 톰프슨의 공이 홀과 더 가까웠으나 먼저 퍼트한 임진희가 약 2.5m 거리에서 침착하게 공을 홀 안으로 보냈다.

더 가까운 거리였던 강의 버디 퍼트가 홀 왼쪽으로 지나가며 임진희와 이소미는 서로 포옹하고 우승 기쁨을 나눴다.

임진희는 "혼자였다면 우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년에 다시 이 대회에 나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미 역시 "우리 모두 작년엔 힘든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우승이 너무 행복하고, 믿기지 않는다"고 웃어 보였다.

2019년 6월 솔라이트 클래식 이후 6년 만에 투어 12승째에 도전한 톰프슨은 통산 연장전 전적 6전 전패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다.

교포 선수 오스틴 김(미국)과 한 조를 이룬 김세영이 16언더파 264타, 공동 6위에 올랐다. 전지원과 이미향은 15언더파 265타로 공동 10위다.

/연합뉴스

“광주 5·18광장서 열리는 세계양궁 최선 다할 것”

양궁 국가대표 안산

양궁 국가대표 안산(광주은행·사진)이 오월 광주의 역사가 담긴 5·18 민주광장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30일 5·18 민주광장에서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이벤트 경기가 열렸다. 이날 경기에서는 전날 대통령기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국가대표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이벤트 경기는 오는 9월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결승전이 진행될다는 점에서 국가대표가 장소와 분위기 등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서 고생을 했는데 쏘다 보니 바람과 날씨에 적응했고, 조준점도 확실히 파악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홈그라운드이자

광주의 랜드마크에서 열리는 만큼 광주시민들께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국가대표 선수들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안산은 7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현대 양궁 4차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다. 4차 대회가 끝나는 대로 스페셜 매치, 전지훈련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현(한국체대)·강채영(현대모비스)과 국가대표팀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안산은 "(선수들) 각자 성장한 부분도 많고, 서로가 더 편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 팀워크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웃어 보였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